

전남 수산물 생산액 5조원 달성 힘 모은다

완도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화합·소통 한마당

오늘까지 이틀간 치어 방류·기자재 전시 등 다채

전남 수산물 생산액 5조원 달성을 위해 지역 수산업경영인들이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3일 "수산업경영인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수산물 생산액 5조원 달성 등 미래 수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가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3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대회는 4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이번 대회엔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미래로 도약하는 수산업경영인'이라는 주제로 완도 등 15개 시·군에서 3천여명이 참석했다. 수산업경영인 및 해양수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전남 수산업·어촌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행사는 치어 방류, 기념행사, 전남 수산물 홍보·판촉, 수산기자재 전시회, 수산업경영인 한마당 잔치 등으로 선보였다.

전남도는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전남 특산물 굴비의 주원료인 참조기 5만 마리를 완도항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

이어 기념행사는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신우철 완도군수, 전남도의원, 시·군의원, 수산업경영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수산업은 생산

과 수출에서 매년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내 수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며 "고유가·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생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수산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산 김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케이(K)-푸드 대표주자를 선점하고 있다"며 "김을 비롯해 수산물 생산액 5조원 달성을 목표

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김양식어장 확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3일 오후 완도군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 환영리셉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건배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미래산업엑스포', 전문 테크 산업전 도약 성공

256개사 참가 수출 계약 786만달러·상담 1천571만달러 성과

광주 대표 산업인 미래차, 드론·뿌리, 가전·로봇산업 등 첨단 기술과 제품의 향연장이었던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수출 상담 188건 1천571만달러(약 217억원), 수출 계약 786만달러(약 108억원) 상당의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광주시 주최, 광주관광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동 주관으로 지난달 27-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현대자동차그룹·삼성전자·지역 기업 등 256개 기업·기관이 507개 부스를 운영,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엑스포는 호남 최대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일반적인 수

준의 전시회를 뛰어넘어 '전문 테크(Tech) 산업전'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출 상담 188건 1천571만달러, 수출 계약 786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조와 물류, 교통,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자동 주차와 안전 순찰 로봇, 친환경차량, 드론 시뮬레이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 부스에는 연일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협동로봇 등 혁신제품을 전시하고 기술을 시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박선경 기자

무엇보다 올해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박람회' 등 3개 전시회를 통합하고 새롭게 '광주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전시회'를 추가 확대해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엑스포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뿌리, 가전·로봇산업 등 광주의 경제 그릇을 키워온 미래 산업을 한자리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모빌리티 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 미래 산업을 탄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자격증 자동부여 폐지 추진 범무사 등 15개...10개 부처에 권고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받은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15종은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합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사 시험이다. /연합뉴스

내년 '섬의 날' 행사 완도 명사십리서 개최

해양레포츠 체험·모래 조각품 전시...관광 활성화 기대

전남도는 3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완도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6회 섬의 날 행사는 2025년 8월8-11일 완도 명사십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념식, 지자체 홍보 전시관, 해양레포츠 체험, 해양치유체험, 햇섬 DIY 체험, 섬 추억 포토부스 및 토끼 자판기 운영, 모래 조각품 전시 등으로 치러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섬의 날 개최지 공모를 통해 전문가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쳤다. 완도는 자연환경, 관광 인프라, 다양한 행사 개최 경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는 255개의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될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청산도 슬로시티, 청해진유적지 등 천혜의 자연과 역사 유산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5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도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6개 섬이 선정될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 섬 관광지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와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나라사랑' 소안도, '날마다 생일' 생일도, '돌담섬' 여서도, '오감 테라피' 금당도 테마로 전남 최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완도군과 함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서원 기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재공모

15일까지 접수...내달 합격자 발표

전남도는 3일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총감독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 전남도문화재단,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 공모문을 참고해 신청서, 전시기획서 등 준비 서류를 오는 15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1차 면접과 최종 면접을 거쳐 8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1차 공모에는 최종 2명의 후보

가 이사회에 추천됐으나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됐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수묵비엔날레는 수묵이라는 특수성과 계속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의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현대미술 축제이자 미학적 사유의 장"이라며 "4회째를 맞은 2025 수묵비엔날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총감독 선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목포·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서원 기자

광주 유통 먹는샘물 수질 모두 '적합'

광주보건환경연구 "여름철 차량 내 장기 보관 피해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지난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먹는샘물 14개 제품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는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제품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등 미생물 항목과 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등 총 52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14개 제품 모두 먹는샘물 수질 기준을 충족,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자동차 실내

와 같이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에서는 페트(PET)병 먹는샘물을 장시간 보관하기보다 가급적 빨리 소비하고 고온에서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먹는샘물을 차량 안에 장시간 보관하며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경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신안동 이면도로코너 대지165㎡ 3층건물 200㎡
급매3억1,000(보5,000월128포함)투자가치최고

우산동 재개발아파트1200세대 정문 코너
대지404㎡ 3층건물 16억5,000(보5,000월600포함)
병의원,슈퍼등 투자가치 최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판매,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